

# 새로운 세계 최대 미술시장 ... 놀이와 예술을 뒤섞다

중앙일보  
2014. 06. 18  
국제갤러리(주)

22일까지 34개국 285개 화랑 참여  
피카소 등 4000여 명 작품 선별

'14개의 방' 비엔날레식 퍼포먼스  
이우환·리히터 회고전 주목 끌어

#1. 15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의 '아트 바젤' 뒤편 홀, 7개씩 총 14개의 거울문이 마주보고 있는 이곳에 관객이 줄을 섰다.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문을 하나씩 열고 들어가는 이들은 때론 숙연하고, 때론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나온다.

아트 바젤의 퍼포먼스 프로그램 '14개의 방(14 Rooms)'이다. 데미안 허스트, 오노 요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등 현대 미술의 대표 선수 14명의 역사적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재현했다. 바이엘러 재단이 아트 바젤, 씨어터 바젤과 함께 주최했고, 세계적 큐레이터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와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퍼포먼스 총괄 큐레이터인 플라우스 비센바크가 공동 기획했다.

#2. 16일 오후, 아트 바젤이 열리는 메세(Messe) 앞이 떠들썩하다. 78점의 대형 설치 작품이 선보이는 '언리미티드(Unlimited)' 색션이 아트 페어보다 하루 앞서 개장했다. 임구연 양혜규의 대형 블라인드 작품이 눈길을 잡는다. '서사적 분산을 수용하며-비 카타르시스 산재의 용적에 관하여'라는 긴 제목이 붙었다. 관객의 입장에 따라 안과 밖, 개방과 폐쇄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특징을 가진 작품은 재일 조선인 서경식 도교경제대 교수를 모티브로 했다. 관객들은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거울 설치 앞에서는 저마다 깔깔거리며 인증샷을 찍고, 미니멀리즘의 대가 칼 안드레의 바닥 설치는 무심히 밟고 다녔다. "오늘날 미술관은 놀이 공원의 즐거움을, 아트 페어는 비엔날레의 실험성을, 비엔날레는 아트 페어의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 글렌 로리 관장의 이 말은 틀리지 않았다. 45주년을 맞는 '아트 바젤 2014'는 비엔날레를 닮아가고 있었다.

세계적 아트 페어 '아트 바젤'이 17일 개막했다. 하이라이트는 초대형 설치를 선보이는 '언리미티드', 이머징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스테이트먼트(Statement)', 바젤 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이다. 특히 올해는 미술과 퍼포먼스의 경계를 허

무는 전시 '14개의 방'이 단연 화제였다. 아트 바젤의 아시아 담당 디렉터 매그너스 랭프루는 "아트 바젤은 상업적 행사인 동시에 예술 플랫폼이다. 이번엔 '언리미티드'의 스케일을 확대했으며, 반대로 '14개의 방'으로 관객들에게 친밀한 체험을 제공했다. 참여한 많은 갤러리들은 '14개의 방'에 열광하는 관객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아트 바젤의 별도 전시 섹션에 올해로 세 번째 참여하는 양혜규는 "아트 페어 또한 스스로 심각해지고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페어의 이같은 진화에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곳은 미술관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올해의 주인공은 이우환·리히터=올해는 34개국 285개의 전세계 주요 화랑이 참여했다. 피카소·워홀·바스키아 등 근현대 미술의 거장들과 함께 동시대 미술을 이끄는 아티스트까지 4000명 이상의 작품이 쏟아져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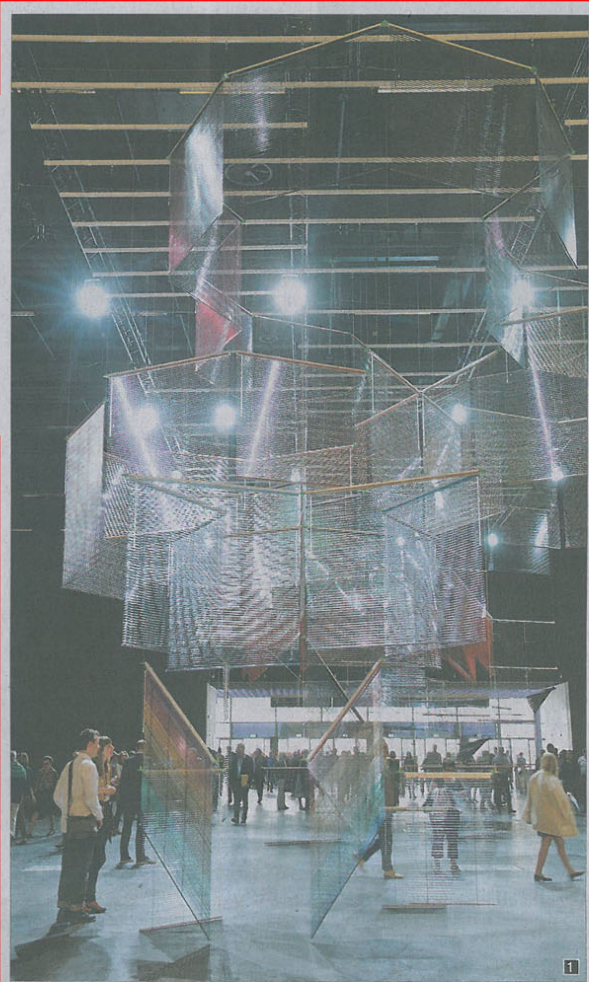
오쿠이 엔위치 2015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 리처드 암스트롱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장, 정도련 홍콩 M+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등이 페어장 곳곳에서 보였다.

올해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이우환의 단색화였다. 뉴욕에 본점을 둔 페이스 갤러리는 1970년대 '선'으로부터 '시리즈부터 오렌지색·파란색' 등으로 한층 밝아진 근작까지 10점 가량으로 이우환의 작은 회고전을 차렸다. 이 화랑 베일리 엘리자벳은 "최근 베르사유궁 전시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3년부터 아트 바젤에 참여한 파리의 갤러리 샬탈 크루젤의 크루젤 대표는 "올해 주목하는 것은 게르하르트 리히터와 볼프강 킬만"이라고 말했다.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은 매년 아트 바젤 기간에 주요 전시를 선보인다. 현재 전시는 세계적 큐레이터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가 기획한 게르하르트 리히터 회고전이다.

재단은 2012년 아트 페어 기간엔 제프 쿤스, 2010년엔 바스키아, 2009년 자코메티 회고전을 열었고, 이들의 작품은 이듬해 경매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현재 생존 미술가의 작품 중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운 것은 제프 쿤스의 '풍선 개'(약 6269만달러). 2012년 10월 에릭 클렘턴이 내놓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추상화 809-4'(약 3639만달러)의 기록을 1년 만에 또 깨졌다. 리히터는 조만간 영지를 회복할 것인가, 아트 바젤에 물려든 이들의 관심사다.

바젤(스위스)=권근영 기자  
young@joongang.co.kr



1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아트 바젤 2014'의 대규모 설치 작품 특별전 '언리미티드' 둘러머리에 설치된 양혜규의 블라인드 작품. 세계 최고의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은 22일까지 이어진다. 2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자연 친화적 건물로 이름난 바이엘러 재단의 '게르하르트 리히터' 전 전경. 3 '14개의 방'에 출품된 데미안 허스트의 퍼포먼스 작품. '한스, 게오르크'(1992)를 재현했다. 앞은 또 다른 도트 페인팅 앞에 쌍둥이가 똑같이 앉아 있다. [사진 아트바젤·바이엘러 재단]

탁월한 기획, 최고의 인프라  
미술시장 넘어 '예술포털'로

왜 스위스 바젤로 모이나

"이봐 친구, 비밀 하나 알려줄까. 내 작품의 30%는 '집'에서 팔고, 나머지 70%는 '길'에서 판다네."

세계적 화랑 화이트 큐브의 제이 조플링이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에게 털어놓았다는 말이다. 린던에 세 곳의 화랑을 가진 그 역시 성과의 대부분을 아트 페어에서 내고 있다. 아트 페어가 미술 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았다. 1995년부터 아트 바젤에 참여한 국제갤러리의 이현숙 회장은 "연중 10개 이상의 아트 페어에 참여하며, 매출의 40% 가량은 거기서 나온다"고 말했다.

매년 6월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등극하는 스위스 바젤은 국내에서는 직항편도 없다. 왜 이 먼 곳까지 오는 걸까. 올해 운영권 최정화의 작품을 갖고 참여한 PKM갤러리의 박경미 대표는 "전세계 주요 갤러리들이 모이는 이곳은 단순히 미술품을 사고 파는 시장을 넘어 예술 포털이 됐다. 최고의 아트 페어 트렌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트 바젤은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아트 페어로 자리를 굳혔을까. 바젤은 확실한 분업이다. 양질의 아트 페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적소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세계적 큐레이터들에게 맡긴 비엔날레급 기획전이 그렇다. 매그너스 랭프루 아시아 담당 디렉터는 이를 "확고한 갤러리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매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참여 화랑을 선별한다. 판매 실적보다는 갤러리가 보여주는 작가 소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페어장 밖, 바젤이 가진 인프라도 한몫한다. 아트 바젤의 전 디렉터로 지금은 바이엘러 재단을 이끄는 사무엘 켈러는 중앙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바젤은 헤르조그와 드비롱, 렌조 피아노, 안도 다다오, 마리오 보타, 피터 Zumthor 등의 작품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건축의 도시이기도 하다. 아트 바젤은 일주일만 이런 것을 확대경처럼 강조해 보여준다."

애호가들이 올해도 바젤을 찾는 이유는 이것이다. 바젤(스위스)=권근영 기자

▶아트 바젤=스위스 바젤에서 매년 6월 열리는 세계 최대의 아트 페어. 1970년 에른스트 바이엘러(1921~2010)가 창설했다. 10개국 90개 갤러리로 출발해 이 아트 페어는 45주년을 맞는 올해 34개국 285개 갤러리로 규모를 확대했다.